

奎章閣創建時代の 圖書館史資料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十三)

朴 熙 永

目	次
第一節 機關과 施設	2) 人 事
1) 校 書 館	第三節 鑄 字
2) 弘 文 館	第四節 實 錄
3) 春 坊	第五節 圖書撰修 및 刊行
4) 書 院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5) 鄉 校	1) 清
6) 奎 章 閣	第七節 藏 書 家
第二節 奎 章 閣	第八節 西 學
1) 奎 章 閣	

當初의 計劃으로는 李朝時代를 6期로 나누어 考察코져 하였으나 이번으로 6期가 되었다. 不得已 8期로 劃하기로變更하였음을 添記하여 둔다.

이런期는 所謂 文藝復興의 時代라고 할 수 있는 英祖와 正祖의 2代를 劃하여 記述키로 하였다.

肅宗까지 極甚하던 黨爭을 英祖는 即位하면서 蕩平主義의 政策으로 黨爭을 根絶하지는 못하였으나 前과 같이甚하지는 않았으며 英祖는 才質이 聰明하고 性이 仁厚 嚴格하여 在位52年間 政治를 바로하게 努力하였고 文運을 隆盛케 하는 土氣를 肅케 하였다. 正祖는 英祖51年(1775)부터 政治를 하게 되었는데 正祖는 王權을 危殆롭게 하던 戚里 宦官들의 陰謀와 暴亂을 누르고 臣下中 學識이 높은 人들을 모아 經史를 討論케 하여 政治의 得失을 살피는 한편 文教의

振興과 當時의 墮落된 風習을 醇化시키고져 英祖52年(1776)에는 一種의 王立圖書館과 王立研究所 王立學術院과 같은 여러 性質을 合한 奎章閣을 設置하여 俊才를 뽑아 學問을 討究케 하고 書籍을 編纂케 하였으며 이듬해인 正祖元年(1777)에는 王立出版局이던 校書館을 奎章閣에 隸屬케 하여 奎章閣이 印刷出版까지 하게 하였다. 따라서 文運의 隆盛은 不만하였으며 많은 書籍이 編纂刊行하게 되고 八子百選, 朱書百選, 五經百篇等을 비롯한 王이 直接撰한 圖書도 많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活字印刷에도 數次에 걸친 活字의 鑄造와 字體의 改良이 있었다. 壬辰字(銅活字), 韓構字(銅活字), 生生字(木活字), 整理字(銅活字) 등이 이때에 만드려진 活字들이 다.

學問에 있어서도 實學派라고 말하는 새로운 學風이 風靡하여 韓國에 關한 研究

가 旺盛하였으니 많은 學者가 나왔던 것이다. 한편 일찍이 宣祖時代부터 들어오기 始作한 天主教에 關한 書籍은 一部 學者들이 學理로서 研究하다가 漸次로 信仰과 實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天主教는 迫害를 받게 되었다.

이 時代는 韓國圖書館史에 있어서 特記할 時代이며 本格的인 研究가 始作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다.

※ 李弘植編 國史大辭典 p216 奎章閣

※ 朴奉石著 國史精解 p240~246

第一節 機關과 施設

1) 校書館

校書館은 第1期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인데 昌德宮 敦化門밖에 있었다.

壬辰亂以後로는 校書館이 別로 크게 남겨지는 일 없이 있다가 이기에 이르러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英祖26年(1750) 7月11日에는 校書館의 官員中 他職이 兼하고 있던 兼校理의 兼務를 廢止하였으며 英祖52年(1776) 奎章閣이 設置되자 校書館은 奎章閣에 屬하는 機關이 되었고 그래서 正祖元年(1777)12月21日에는 校書館을 奎章外閣이라 하였고 奎章閣을 內閣이라 하였는데 奎章閣提學 徐有膺에게 節目을 作成토록 命하고 있다. 校書館이 奎章閣에 屬하였을 當時의 官員은

外閣提調 2員(奎章閣提學이 兼)

副提學 2員(奎章閣直提學이 兼)

校理 2員(1員은 奎章閣直閣이 兼)

博士 2員(1員은 奎章閣待敎가 品에 따라서 兼)

著作 2員

正字 2員

司准 10員

司勛 1員

書吏 10人

庫直 2名

使令 7名

軍士 1名

이 있었다.

以上の 官員으로 校書館이 運營되다가 正祖12年(1788)10月18日에는 判校라는 職을 後置하게 되어 官員도 決定되었었다.

正祖5年(1781)2月29日 直提學 鄭民始에게 外閣諸務의 監正을 命하여 事務도 整頓하게 하였다. 正祖5年(1781)6月11日에는 校書館이 奎章閣과 떨어져 있어 거처 장스러우니 關外 移設케 하여 正祖5年(1781)7月16日 江華에 靑建을 始作하여 正祖6年(1782)2月14日 完成되었다.

이 時期의 校書館은 많은 圖書를 出版하고 있다. 이를 주러본다면 아래와 같다
英祖 7年(1731)

宣廟實鑑을 刊進

“ 18年(1742)

童蒙先習의 刊進을 命

“ 19年(1743)

攷事撮要의 印出을 命

“ 20年(1744)

光國志慶錄의 重刊을 命

四書, 三經, 史略, 小學等의 印出을 命

“ 21年(1745)

原大典, 續大典의 刊行을 命

“ 23年(1747)

觀刈儀註의 刊行을 命

政經의 刊印을 命

皆壇儀軌 기록

“ 32年(1756)

訓書의 刊印을 命

- 〃 33年(1757)
年代總鑑(親製)의 刊行을 命
- 〃 39年(1763)
御製續晉世間答의 印進을 命
- 〃 44年(1768)
集慶堂編輯의 活印을 命
- 〃 45年(1769)
御製續滌昆錄의 刊印을 命
君臣同會錄의 刊進을 命
- 〃 46年(1770)
供武正韻을 刊進
- 〃 47年(1771)
滌昆錄의 印出을 命
御製樹德全編의 刊進을 命
- 〃 49年(1773)
松溪集, 燕行錄의 刊行을 命
- 〃 51年(1775)
八句滌昆錄을 刊進
- 〃 52年(1776)
孝孫錄의 刊印을 命
- 正祖 2年(1778)
南有容의 詩文의 印給을 命
- 〃 7年(1783)
禮疑類輯을 印進
- 〃 9年(1785)
容學輯要의 活印을 命
- 〃 12年(1788)
同文彙考129卷을 印進
- 〃 16年(1792)
增修無冤錄1卷, 諺解2卷의 刊布를 命
- 〃 18年(1794)
丁酉字活印 三經四書를 進
奎章名選을 印進
無冤錄諺解의 印頒를 命
- 英宗實錄 卷71 英宗26年7月 辛亥條
- 正宗實錄 卷4 正宗元年12月 癸丑條

- ③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 校書館條
- ④ 正宗實錄 卷26 正宗12年10月丙午條
- ⑤ 承政院日記 乾隆46年6月11日條
- ⑥ 備邊司騰錄 正宗辛丑年 7月16日條
- ⑦ 正宗實錄 卷13 正宗6年2月 辛巳條

2) 弘文館

弘文館은 第3期로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集賢殿과 비슷한 官署이어서 命을 받아 圖書를 撰하거나 또는 訪問에 應하기도 하였다.

英祖10年(1734)6月15日에는 歷代名臣奏議의 抄進을 命하였고 ① 英祖11年(1735)正月21日에는 三綱行實錄以後의 表異者를 精抄토록 命하였고 英祖41年(1765)12月8日 輿地圖를 印進케 하고 各色의 邑誌있는 것을 哀進토록 命하였다. ③

正祖8年(1784)6月12日 應敎 李魯春等이 撰한 弘文館志를 完成하였는데 이를 印頒토록 命하였다. ④

正祖15年(1791)11月12日 弘文館所藏의 西洋諸書를 館中에서 採웠다고 있는바 이 當時에는 弘文館에 이미 西洋圖書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⑤

- ① 英宗實錄 卷38 英宗10年6月 己未條
- ② " 卷40 " 11年正月 壬辰條
- ③ " 卷106 " 41年12月 己酉條
- ④ 正宗實錄 卷17 正宗8年6月 乙未條
- ⑤ " 卷33 " 15年11月 癸未條

3) 春坊

春坊은 世孫講書院의 改稱으로서 世宗30年(1448)에 設置한 王世孫을 모시고 講義하는 일을 맡아 보던 官署이다.

英祖38年(1762)7月24日 明朝의 故事에 依하여 世孫을 東宮이라 稱하고 講書院을

春坊이라 하였다고 하며 英祖45年(1769) 5月13日에는 續稽昆錄을 御製하여 藝閣(校書館)에 刊印할 것을 命하고 史庫와 政院, 弘文館, 藝文館, 春坊에 藏하도록 하였다고 있는바 春坊도 많은 圖書를 蒐集 藏하고 있었다. 現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奎章閣藏書안에는 「春坊」의 印이 捺印된 圖書가 많이 있는 것이다.

① 英宗實錄 卷100 英宗38年7月 甲申條

② " 卷112 " 45年5月 甲午條

4) 書 院

書院은 第3期로부터 繼續되는 私學機關이다.

第6期中에서 賜額한 書院은 아래와 같다.

英祖3年(1727)2月18日

① 權尙夏의 書院에 黃江의 額을 賜

正祖11年(1787)3月11日

② 金叔滋의 書院에 洛峰의 額을 賜

正祖14年(1790)2月17日

③ 河陽書院에 琴湖의 額을 賜

① 英宗實錄 卷11 英宗3年2月 乙亥條

② 正宗實錄 卷23 正宗11年3月 己卯條

③ " 卷29 " 14年2月 戊辰條

5) 鄉 校

鄉校는 第4期에서 記述한바와 같이 衰微하여 갔다. 第6期中인 正祖13年(1789) 9月13日 水原府에 鄉校가 이룩되었다.

① 正宗實錄 卷28 正宗13年9月 丙申條

6) 奎 章 閣

奎章閣은 第2節에서 述한다.

第二節 奎 章 閣

1) 奎 章 閣

奎章閣은 正祖即位年(1776)3月에 工事

를 始作하여 同年9月25日에 落成하였다. 初代 奎章閣提學으로 黃景源, 李福源을 그리고 奎章閣直提學으로는 洪國榮, 俞彥鎬를 各各 任命하였다 奎章閣의 雜職까지 合한 官員은 다음과 같다.

提學	2員 正二品~從一品
直提學	2員 正三品~從二品
書吏	10名
兼吏	6名
正書朝諫吏	2名
閣童	4名
直	2名
大廳直	2名
使令	15名
引陪	4名
間陪	4名
照羅赤	2名
直閣	1員 從六品~正三品
待教	1員 正九品~正七品
閣監	2員
司卷	2員
檢書官	4員
領籤	2員
檢律	1員
寫字官	8員
書員	10員
監書	6名
房直	2名
水工	2名
軍士	2名
丘從	6名

우리나라의 設官制度는 모두 宗의 制度를 따랐는데 龍圖, 天章의 制와 같은 御製尊閣이 없어 世祖에 梁誠之가 啓하기를 御製寶藏의 閣을 設置하여 奎章閣이라 하고 여러 圖書를 所藏하는 內閣을 秘書閣

이라 하여 設官出納케 할 것을 願하여 設置하게 되었으나 오래 繼續되지 못하였는데 肅宗은 肅宗20年(1694) 小閣을 宗正寺에 別建하여 列聖의 御製御書를 奉하고 肅宗이 御筆로서 만든 奎章閣이라는 三字의 額을 거렸는데 아무런 規則도 없었다. 正祖가 即位하자 正祖即位年3月 昌德宮北苑에 閣을 建立하여 列朝의 御製御書를 同奉로서 始作하여 正祖即位年9月25日에 비로서 奎章閣 建立工事が 끝나서 처음에는 御製閣이라 하였다가 後에 肅宗의 御扁으로 因하여 奎章閣이라 불르게 되었다. 上은 樓로 되고 下는 軒인데 6間의 建物이었다. 後에 다시 正祖의 御眞, 御製, 御筆, 印章을 奉하고 西南에 있는 奉謨堂에는 列朝의 御製, 御筆, 御書 등을 奉하고 正南에는 上下 2層의 2間建物인 閣古觀이 있고 正西에는 3間의 移安閣이 있는데 左右에 2間의 煖閣으로 되어 있는 曝晒하는 곳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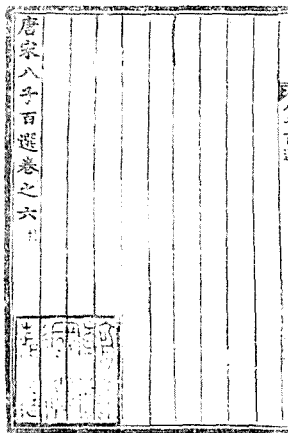
正祖元年(1777) 4月15日에는 奎章閣臣 李秉模等에게 奎章閣의 騰錄節目을 定하게 하고 閣의 規則을 定하여 冊子로 만들 것을 命하였으며 校書館은 獨立한 機關이 었으나 正祖元年12月21日에는 校書館을 奎章閣의 外閣이라 하여 奎章閣에 隸屬하게 하였으며 奎章閣提學이던 徐命膺으로 하여금 節目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서 奎章閣은 同書의 印刷과 刊行까지 하는 正立圖書館으로 改編하게 되었다.

正祖元年(1777)9月15日 徐命膺이 奎章閣志의 稿를 進하였는데 正祖8年(1784)6月1日 奎章閣志를 完成하였기 正祖는 親히 序文을 製하고 校書館으로 하여금 刊進케 하였다.

正祖5年(1781)正月15日 肅宗이 御筆한 奎章閣의 扁額을 宗簿寺로부터 奎章閣으로 移奉하였다.

正祖5年(1781)2月13日 奎章閣 故事節目을 書進하였는 閣規가 이로서 많이 整備하게 되었다.

奎章閣이 藏書印은 世祖때 梁誠之가 建言한 것을 따라서 奎章閣書籍에는 圖書前面에 篆書로서 朝鮮國御藏書라고 하고 圖書後面에는 楷書로서 朝鮮國某歲御藏書라고 하는 印을 捺印케 하였는데 年號는 明



나라 年號로서 하였다.

正祖5年(1781)6月29日에는 奎章閣所藏의 圖書目錄인 奎章閣總目이 이록되었는데 正祖5年 當時의 奎章閣의 總藏書數는 30,000餘卷으로서 經史子集의 4部式으로 分類되었다. 當時 奎章閣의 圖書를 分類한 類는 다음과 같다.

- 甲部 摠經類 易類 書類 詩類 春秋類 禮類 樂類 四書類 小學類
- 乙部 正史類 編年類 別史類 掌故類 地理類 鈔史類 譜系類 總目
- 丙部 儒家類 天文類 曆象類 卜筮類 農家

類 醫家類 兵家類 刑法類 道家類 釋
家類 雜家類 說家類 藝玩類 類書類
叢書類

丁部 總集類 別集類

奎章閣의 廳書는 每年1回 5月端午로 부터 7月初旬까지 사이에 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正祖6年5月29日에 正祖가 拔汗巴에 依하던 奎章閣의 設置目的은 唐, 宋, 明의 制度를 模倣한外에 큰 目的이 있었다. 그것이 朝廷을 깨끗하게 하고 世道를 바로잡기 爲하였으며 그러기 爲하여 戚里와 宦侍이 禍本이요 亂根이었기에 이를 掃蕩하기 爲하고 틀었는대로 經史를 討論하여 百姓의 疾苦를 살피고 治政의 得失을 알게 함이 正祖가 奎章閣을 設置한 本意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李弘植編 歷史大事典

奎章閣志

文獻備考 卷220, 職官考7 奎章閣條

- ① 正宗實錄 卷2 正宗即位年9月甲午條
- ② " " "
- ③ 承政院日記 乾隆42年4月5日條
- ④ 正宗實錄 卷4 正宗元年12月癸丑條
- ⑤ 承政院日記 乾隆42年9月15日條
- ⑥ 正宗實錄 卷17 正宗8年6月甲申條
- ⑦ 承政院日記 乾隆46年正月15日條
- ⑧ 正宗實錄 卷11 正宗5年2月丙辰條
- ⑨ " 卷11 " 6月庚子條
- ⑩ " 卷13 " 6年5月乙丑條

1) 人 事

正祖때에 奎章閣의 提學을 비롯하여 9官을 歷한 사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提學) 黃景源, 李福源, 蔡濟恭, 徐命膺,
洪國榮, 李徽之, 金鍾秀, 俞彥鎬,
吳載純, 趙 玟, 李性源, 鄭民始,

徐鼎修, 沈煥之, 尹耆東, 鄭民始,
(直提學) 洪國榮, 俞彥鎬, 鄭民始, 徐浩修,
沈念祖, 鄭志儉, 徐有防, 李秉模,
朴祐源, 金載瓚, 李晚秀,
(直閣) 李秉模, 金 喜, 金宇鎮, 徐鼎修,
金載瓚, 徐龍輔, 鄭大容, 尹行任
徐榮輔, 南公徹, 金祖淳, 李始源,
沈象奎, 金近淳

第三節 鑄 字

1) 活 字

英祖, 正祖 2代에 있어 7회에 걸쳐 鑄字를 하였는데 實은 英祖때 鑄字한것도 正祖가 東宮으로 있으면서 命하여 鑄字하였으니 正祖가 7회가 鑄字하였던 것이다.

第1回는 英祖48年(1772)에 甲寅字를 改鑄하여 15萬字를 鑄하여 校書館에 두어 經書正文, 啓蒙集箋을 印行하였다. 英祖48年의 壬辰이어서 이를 壬辰字라고 한다.

第2回는 正祖元年 徐命膺에게 命하여 箕營에서 鑄하였는데 甲寅字를 本으로 하여 15萬字를 加鑄하였다. 正祖元年의 丁酉라서 이를 丁酉字라고 한다.

第3回는 正祖6年(1782) 8萬餘字를 鑄字하였는데 韓構字라고 하며 一名 壬寅字라고도 한다.

第4回는 正祖14年(1790) 改鑄甲寅字를 鑄字하였다.

第5回는 正祖16年(1792) 淸國의 四庫全書의 聚珍板을 模倣하여 그것을 寫本으로 하여 黃揚에게 大小 32萬字를 木으로 刻成케 하였는데 이를 生生字라고 한다.

第6回는 正祖19年(1795) 生生字를 木으로 하여 銅으로서 大字 16萬字 小字 14萬字 合하여 30萬字를 鑄字하였는데 이를 整理字라고 한다.

第7回は 正祖21年(1797) 曹允亨의 字를 本으로 하여 黃運祚가 書寫한것을 鑄字하였는데 이를 春秋銅字라고 한다.

※ 韓國史辭典

正宗實錄 卷4 正宗元年8月丙申條

正宗實錄 卷44 正宗20年3月癸亥條

第四節 實 錄

第6期는 英祖와 正祖의 2代를 調하였으므로 第6期中에 이루어진 實錄은 英祖의 先王인 景宗, 英祖의 2代實錄이 이루어진 것이다.

景宗實錄은 英祖5年(1729)10月9日에 始作하여 英祖8年(1732)2月18日^① 15卷을 完成하였다.

英祖實錄는 正祖元年(1770)6月10日^②에 編纂을 始作하여 正祖5年(1781)7月6日^③ 127卷을 完成하였다.

景宗實錄의 改修가 論議되다가 正祖元年(1777)10月29日 所謂 修正景宗實錄의 編纂을 始作하여 正祖5年(1781)7月6日^④ 英祖實錄의 完成과 함께 修正本3冊이 完成하였다.

正祖18年(1794)9月30日^⑤ 春秋館에 光海朝史草의 修正을 命하였는데 燕山君日記의 例에 따라 刊印토록 하였다.

① 英宗實錄 卷24 英宗5年10月庚戌條

② " 卷31 " 8年2月丙午條

③ 日省錄 正宗丁酉年6月10日

④ 正宗實錄 卷12 正宗5年7月丙午條

⑤ " 卷4 正宗元年10月辛酉條

⑥ " 卷12 " 5年7月丙午條

⑦ " 卷41 " 18年9月甲亥條

第五節 圖書撰修 및 刊行

第6期中에 있어서 撰修 및 刊行된 圖書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英祖 3年(1727)

朴世采文集의 刊進을 命

" 4年(1728)

李漢謙 李文錫의 明史綱目30卷을 進

戊申揚亂錄의 印出頒布를 命

" 5年(1729)

西征錄의 進을 命

三綱行實의 印布를 命

列朝寶鑑의 續纂을 命

" 6年(1730)

白頭山圖를 進

" 7年(1731)

聖朝英堵錄을 進

選慶儀註를 進

觀象玩占을 印進

" 8年(1732)

金昌協의 節酌通編을 取覽

璫璣玉衡 이록

" 9年(1733)

柳成龍의 鹽稅錄을 進

退陶言行錄의 刊進을 命

" 10年(1734)

朝天錄의 刊進을 命

東賢奏儀及續經筵故事의 刊進을 命

唐本女四書의 諺釋을 命

" 12年(1736)

朴世采의 東偏師友錄을 進

女四書의 諺譯을 命

" 16年(1740)

都堂錄 이록

續五禮儀의 修正을 命

" 18年(1742)

兵將圖說의 刊印을 命

" 20年(1744)

續五禮儀 이록

- * 21年(1745) 皇明通記를 皇明通鑑이라 改名 更印
 增補歷代總日의 修正을 命
 * 22年(1746) 李玄錫撰의 明史綱目新刊 이록
 續大典 印本 이록
 * 24年(1748) * 48年(1772)
 李舜章 魏昌祖衷輯의 北道陵殿誌를 進 李玄錫撰 明史綱目的 刊行을 命
 無冤錄 重刊 * 49年(1773)
 * 25年(1749) 金嶺圭의 文集을 給財助刊
 皇壇儀軌 이록 御製孝悌勸諭文의 刊布를 命
 養正圖解의 刊行을 命 皇華集의 重刊을 命
 諸軍門大將에게 續將兵圖書의 撰을 命 * 50年(1774)
 * 27年(1751) 洪翼漢等三學士傳의 印進을 命
 李瑬 湖南海南島圖를 進 * 51年(1775)
 司馬溫公著 稽古錄의 刊行을 命 八旬裕昆錄을 親製
 * 29年(1753) * 52年(1776)
 東醫寶鑑及 增補萬病回春의 刊板을 命 李福源, 柳義滋에게 宮園儀4卷의 編
 * 30年(1754) 算과 刊行을 命
 爲將必覽의 印頒을 命 列聖御製를 印
 * 31年(1755) 明義錄을 撰
 李滉著 聖賢道學淵源을 進 正祖元年(1777)
 * 34年(1758) 明義錄 이록
 喪禮補編의 編輯을 命 璿源譜略의 致張印出 이록
 北關誌의 刊印을 命 八歲兒를 改刊
 朴世采著 六禮疑輯의 刊印을 命 * 2年(1778)
 * 38年(1762) 續明義錄의 印頒을 命
 揄揚盛烈錄의 頒布를 命 欽恤典則 이록
 * 41年(1765) 續明義錄 이록
 百行源의 刊進을 命 朝賀圖式을 刊行
 * 45年(1769) 金鍾經筵故事를 編進
 政本大訓의 刊布를 命 徐命膺著 南漢志를 進
 柳擇遠의 礪溪隨錄의 刊行을 命 * 3年(1779)
 東國文獻備考의 撰을 命 徐命膺受命編 奎華韻瑞 8卷 이록
 * 46年(1770) 詩和譯 10卷 이록
 文獻備考를 白紙로서 印進 奏議纂要 8卷 이록
 東國文獻備考140冊을 陪進 名臣奏議要略 16卷 이록
 * 47年(1771) * 5年(1781)
 御定 聖學輯略 3卷 이록

- 御定 八子百選 이룩
徐命膺, 蔡濟恭, 趙瑗等에게 國朝寶鑑의 撰을 命
- 朱子選統 3卷 이룩
瓊屑糕 1卷 이룩
諫陣總方 1卷 이룩
- 〃 6年(1782)
文獻備考의 修正을 始作
金鍾秀著 歷代名臣奏議要略 8卷을 進
國朝寶鑑 이룩
璿源譜略 全帙을 印進
千歲曆 3卷의 印頒을 命
- 〃 7年(1783)
國朝名臣奏議續編 6卷3册을 進
徐有膺에게 燕射儀註의 改撰을 命
- 〃 8年(1784)
朴聖源撰 敦孝錄의 刊進을 命
竭恤要覽을 進
璿源錄系譜 이룩
御定皇極編 13卷 이룩
- 〃 9年(1785)
睿學輯要를 進
大典通編 이룩, 刊印을 命
兵學通 이룩, 印頒을 命
葵塙錄續成을 命
太學志 14卷 이룩
- 〃 10年(1786)
葵塙錄 8卷 이룩
鄭昌順等撰 疹疫方을 進
列聖誌狀通紀別編의 纂을 命
- 〃 11年(1787)
文苑備考 이룩
柳義奎에게 五禮儀의 補輯을 命
- 〃 12年(1788)
禹禎圭 經濟野言을 進
春官通考 96卷의 撰을 命
度支志60卷의 撰을 命
章筭彙編60卷의 撰을 命
- 〃 13年(1789)
海東釋史70卷을 編
地理考7卷 이룩
新法漏籍通義1卷을 印行
新法中星紀1卷 이룩
- 〃 14年(1790)
武藝圖譜通志5卷, 總譜1卷 이룩
- 〃 15年(1791)
無冤錄諺解를 刊行
金憲에게 林慶業實記의 輯을 命
徐龍輔에게 金德齡遺事의 輯을 命
莊陵誌의 修正을 命
- 〃 16年(1792)
車天輅五山集의 頒行을 命
曆書의 刊行을 命
- 〃 17年(1793)
金華鎮等 覃恩錄1卷을 進
育英姓彙 29卷 이룩
- 〃 18年(1794)
關東實興錄을 刊進
人瑞錄 이룩
朱書百選 이룩
- 〃 19年(1795)
協吉通義를 進
忠武公李舜臣全書 14卷 印頒
挹翠軒集을 印進
訥齋集을 印進
- 〃 20年(1796)
捷解新語文釋 頒行을 命
莊莊陵志의 校正을 命
御定奎章全韻 2卷의 頒賜을 命
御定五經百篇考校를 進華
華城役儀軌 이룩, 整理字로 印出을 命
增訂文獻備考 246卷, 鏤板考7卷, 春

- 秋左氏傳28卷, 歷代行表 6卷 이룩
- 〃 21年(1797)
 - 鄉禮合編 이룩
 - 陸奏約選 이룩
 - 〃 22年(1798)
 - 杜陸分類 이룩. 整理字로 印頒을 命
 - 五經百篇5卷 이룩
 - 四部手圖 이룩
 - 〃 23年(1799)
 - 雅誦 이룩
 - 群書標記 이룩
 - 濟衆新編 9卷 이룩
 - 杜陸千選 8卷 이룩
 - 廟漢衆編 75卷 이룩
 - 〃 24年(1800)
 - 關西, 關北寶典錄의 編刊을 命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1) 淸

淸이 立國한 當初는 外交가 活潑치 않았으나 次次로 外交가 頻繁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個人著書의 序文에는 大概가 明의 最後의 年紀인 崇禎을 使用하여 「崇禎紀元後 三甲子」라는 式의 年紀를 使用하고 있었다. 淸과의 關係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英祖4年(1728)10月24日

曆官을 燕京에 보내어 御定曆法을 求買케 하였다.

英祖4年(1728)12月23日

回還한 使臣이 康熙字典, 性理精義, 詩經傳說彙纂, 音韻闡微等の 書籍을 받아 오다.

英祖8年(1722)2月10日

淸國改撰한 萬年曆을 買來하였다.

英祖8年(1732)5月8日

冬至使가 明史, 朝鮮列傳을 進하였다.

英祖9年(1733)7月20日

七政四餘萬年曆 3册, 時憲新法五更中星紀 1册, 二十四氣曉中星紀 1册, 明交食稿本各 1册, 西洋國新造日月圭一坐를 購得하였다.

英祖11年(1735)正月30日

日躔表, 月離表, 七曜曆法等書를 購來하였다.

英祖12年(1736)10月28日

明史全帙을 購來케 하였다.

英祖13年(1737)5月14日

淸蒙文鑑을 得하였다.

英祖15年(1739)2月2日

奏淸使 金在魯等 改刊한 明史朝鮮列傳을 가져오다.

英祖16年(1740)4月4日

回還冬至使 綾昌君權가 明史全帙을 私買하여 가져오다.

正祖元年(1777)2月24日

四庫全書를 求購하라는 命을 받고 있는 進賢兼謝恩使의 狀啓에 依하면 詳探하였으나 말하는 것이 하나 같지 않아서 屢次 編校翰林에 往復하였으나 四庫全書가 萬卷에 가까움과 더우기 抄字가 많고 刊印한 것은 10分の1 밖에는 안되고 印本4部中 1部는 大內 1部는 文淵閣 1部는 圓明園 1部는 熱河에 두어 4部以外에는 없다고 한다. 四庫全書는 힘이 들며 따라서 古今圖書集成 5020卷502冊을 購入하여 價銀子 2150兩을 給하여 方今 載運코지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正祖7年(1783)3月24日

四庫全書를 移寫하여 運搬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는 正祖5年(1781)4月18日 冬至使의 狀에 四庫全書의 移寫考檢에 關

하여 記載되어 있다. 四庫全書移寫의 일은 正祖6年(1782)에 이루어졌으며 一帙 3600卷 總目 200卷이라고 하며 河邊에 到着하였음을 冬至兼謝恩使가 啓하고 있다.

第6期에 있어 淸과의 關係에서 特記할 일은 淸의 四庫全書 36000卷을 轉寫해 왔던 일이라고 하였다.

第七節 藏書家

徐命膺은 字를 君受라고 하고 保晚齋라고 號하였다. 大邱 사람으로서 吏曹判書 徐宗玉의 아들이고, 領相 徐命善의 兄이 된다. 英祖11年(1735) 生員이 되고 英祖30年(1754)文科에 올라 副提學 吏曹判書 등을 거쳤으며 使臣으로 中國에 다녀와서 大提學이 되었다. 正祖11年(1787)에 卒하였는데 保晚이라는 號는 王이 賜하였으며 正祖가 東宮으로 있을때 易學啓蒙을 進講하였으며 文靖이라 諡하였다.

徐命膺은 奎章閣이 서자 提學이 되었는데 奎章閣의 發展에 크게 貢獻하였으며

博識하여 著述도 많이 있으며 많은 書籍을 藏書하고 있었다.

第八節 西學

韓國에 當時 西學이라 稱하는 天主教가 드러오기는 壬辰亂時代부터였는데 그間 一部 學者間에는 學理를 研究하여 왔고 信仰으로 次次 變하여 왔었다.

正祖8年(1784)3月4日 淸에 갔다는 使臣中 書狀官 李東郁의 子 承薰이 帶行하였는데 李承薰은 燕京에서 受洗하고 돌아오면서 西敎書冊을 數種 가져 왔다. 그리하여 正祖15年(1791)11月3日에는 西學의 書籍이 活字印刷된다는 說이 있어 當時 平澤 縣監으로 있던 李承薰이 拿問되었다. 한편 天主教의 流布를 막기 爲하여 正祖15年(1791)11月8日에는 京外에 諭하기를 西洋書를 家藏하는 者는 官에 自首하여 告하도록 하였고 甚至於是 正祖15年(1791)11月12日에는 弘文館이 所藏하고 있던 西洋諸書를 館中에서 燒却하여 없애기 까지 하면서 이를 막았던 것이다.

讀書週間行事 實施報告의 일

1962년도 독서주간 동안 실시한 행사의
보고서를 11月 20日限 圖書館協會로 提
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